

오늘 9월 모평 실시, 정시지원·수능최저 여부 파악해야

모의평가 이후 지원 전략은

**반수생 합류, 응시생 60만명
실제 출제경향·난이도 가능
수능 영역별 강약점 확인해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출제 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 9월 모의평가가 5일 치러진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이날 오전 8시40분부터 전국 2088개 고등학교와 431개 지정학원에서 2019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반수생 등 합류… 지원자 전년 대비 7295명 증가

이번 모의평가에는 60만780명이 응시 지원했고, 재학생은 51만4436명, 졸업생 등 수험생은 8만6344명이다. 전년 같은 기간 시험 대비 지원자 수가 7295명 증가했고, 재학생이 7018명, 졸업생 등은 277명 늘었다.

영역별 지원자는 국어 영역 59만9949명, 수학 영역 가형 21만248명, 나형 38만5083명, 영어 영역 59만9326명, 한국사 영역 60만0780명, 사회탐구 영역 31만1679명, 과학탐구 영역 27만5087명, 직업탐구 영역 1만2282명이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5만7106명이다.



서울 종로학원 강남본원에서 열린 '2019 대입 수시 특별설명회'에서 학부모들이 연사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모의평가는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출제해 2019학년도 수능의 실제 출제경향과 난이도를 가늠할 수 있는만큼 결과에 따른 전략이 중요하다.

평가원은 "이번 모의평가는 오는 11월 15일 실시될 2019학년도 수능 준비 시험으로서 시험의 성격, 출제 영역, 문항 수 등은 실제 수능과 동일하다"며 "수능 준비도 진단과 보충, 문항 수준과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 제공을 위해 치른다"고 설명했다.

이날 수능은 지난 6월 모의고사보다는 쉽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실제 수능의 경우는 전년 수능이나 모의평가보

다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 전망이 많다. 특히 지난해 첫 절대평가로 시행됐던 영어 영역의 경우 응시자 10%가 1등급을 받을 정도로 쉬웠지만, 올해는 영어 변별력 확보를 위해 더 어렵게 출제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평가원이 출제한 지난 6월 모의평가는 전년 수능은 물론 모의평가보다도 어렵게 출제됨에 따라 올해 수능이 전년보다 다소 어렵게 출제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평가원은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통해 실제 수능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답안지 채점은 수능과 같이 이미지 스캐너를 이용하므로 응시생은 답안지에 검은

색 컴퓨터용 사인펜을 사용해야 한다. 연필이나 샤프를 사용하거나 특히 펜의 종류와 상관없이 예비 마킹(marking) 등 필기구 흔적이 남으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흰색 수정테이프 등으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영역별 응시자 수가 표기된다. 다만 절대평가인 영어와 한국사 영역의 경우 등급과 응시자수만 표기되고, 성적은 이의신청 접수(9월5일~8일)와 심사를 통해 정답을 확정된 뒤 10월 2일 수험생에게 통보된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는 수능 성적 전체가 무효 처리되며 성적 통지표가 제공되지 않는다.

◆정시 지원 가능 대학, 수시 최저학력기준 충족 여부 판단

9월 모의평가에는 대학 1학년 재학 중 재도전을 하는 이른바 '반수생'이 합류하고 실제 수능 영역별 모든 범위가 포함되는 등 실제 수능에서 내 위치를 가늠할 수 있는 시험으로 그 중요성이 크다. 이에 9월 모의평가 결과와 학생부 성적, 대학별 고사 준비 정도 등을 따져 본 뒤 대학별 입시요강에 따라 수시모집 6곳, 정시모집 3곳 등 총 9번의 지원 기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

9월 모의평가 결과에 따라 수능 영역별 강약점을 파악해 실제 수능에서 더 좋은 점수를 받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이 때

오답노트를 만들어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평가팀장은 "9월 모의평가는 6월 모의평가와 함께 올해 수능을 예측하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영역별 출제경향과 시험 난이도를 판단해 자신만의 오답노트를 만들어 향후 학습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며 "취약한 영역이 무엇인지 먼저 판단하고 그 부분부터 어떻게 보완할지 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모의평가 결과에 따라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지원 대학을 정하고, 수시모집에서는 자신이 지원하려는 모집단위의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도 파악해야 한다. 특히 올해 수시모집 원서접수는 10일~14일까지로, 이번 9월 모평 결과(10월2일) 이전에 수시 지원 대학을 정해야 하므로, 이번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를 활용해야 한다. 또 수능 이후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에 지원할 경우 수능 성적에 따라 수시와 정시 중 최종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한 지원 전략이 필요하다.

남윤곤 메가스터디교육 입시전략연구소장은 "대학들의 시험일이 겹치면 응시생이 분산돼 결과적으로 그 대학의 실질 경쟁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이를 정확히 파악해 지원 전략에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대학가 소식



삼육대학교 미술컨텐츠학과 동문회(회장 정경심)가 오는 28일까지 삼육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네 번째 동문전을 개최한다. /삼육대

삼육대 미술컨텐츠학과 동문회, 네번째 동문전 열어

삼육대학교는 미술컨텐츠학과 동문회(회장 정경심)가 오는 28일까지 삼육대 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네 번째 동문전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전시 제목은 '나무 그림자 춤추는 호수'로, 나무와 그림자로 인화된 동문들의 흔적(작품)을 모아놓은 '펼침장'(호수

를 의미한다. 이번 전시에는 강준희 김도경 김무현 김상우 김춘옥 박소현 소진애 윤영희 정경심 등 20대 신진에서부터 원로 및 중견 작가에 이르기까지 미술계 각 영역에서 활동하는 9명의 동문 작가들이 참여했다.

경희사이버대 7일 '한중일의 미의식' 저자 초청 특강

경희사이버대학교는 후마니타스학부(학부장 서유경)가 오는 7일 오후 7시 네오르네상스관 105호에서 '한중일의 미의식' 저자인 한성대 예술대학 지상현 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날 특강은 지 교수의 '한중일의 미의식-곡예적이거나, 이념적이거나 혹은 탐

미적이거나'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이후 참여 학생들과의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지 교수는 흥익대에서 시각디자인을 전공하며, 연세대 대학원 심리학과에서 시각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한성대 예술대학 시각영상디자인전공 교수로 재직 중이다.

명지대 내일 '개교 70주년 감사예배' 개최

명지대학교(총장 유병진)는 6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인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 1층 중정에서 개교 70주년 감사예배를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1948년 개교해 올해 70주년을 맞은 명지대는 '사랑·진리·봉사'라는 대학이념으

로 지금까지 13만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이번 기념 예배에서는 지금까지 대학이 이룬 성과를 돌아보고 개교 70주년을 넘어 100년의 역사를 내다보기 위한 자리다. /한용수 기자

구직자 2명 중 1명 "연고 없는 지역도 OK"

**사람인 구직자 1386명 대상 설문
이유 1위 "취업하기 어려워서"
대신 연봉·안정성·근무환경 중시**

극심한 취업난 속 구직자 절반은 취업만 된다면 현재 거주지가 아니거나 연고가 전혀 없는 곳에서도 근무할 생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사람이인 구직자 138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3%가 '연고가 없는 지역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성별로 살펴보면, 이런 의향을 갖는 구직자는 남성이 54.3%로 여성(35.7%)보다 많았다.

이들은 거주지가 아닌 지역이라도 취업할 의향이 있는 이유(복수응답)로 '취업하기가 어려워서'(56.2%)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삶의 전환 기회가 될 것 같아서'(38%), '일단 경력을 쌓아서 옮기려고'(19.3%), '지금보다 인프라가 좋을 것 같아서'(17.3%), '입사를 원하는 회사가 있어서'(16.4%),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10.4%)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근무 가능한 지역(복수응답)은 '현재 거주지에서 가까운 곳'(47%)이 가장 많

았다. 이어 '수도권'(39.1%), '광역시 등 지역 거점'(25.5%), 'KTX 등 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25.5%), '장거리라도 출퇴근이 가능한 곳'(25.5%), '연고지(고향)와 가까운 곳'(19.9%), '해외'(16%) 등의 순이었다.

거주지가 아닌 지역의 회사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은 '연봉'(36.8%)이 1위를 차지했다. 계속해서 '고용의 안정성'(17.6%), '근무 환경'(15.7%), '희망 직무'(8.4%), '거주지, 거주비용 지원'(8.3%), '회사의 발전 가능성'(5.9%), '출퇴근 편의성'(4.7%)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 /한용수 기자

비상교육 유아영어 프로그램 '윙스' 베트남 진출

동남아 교육시장 본격 개척

교육전문기업 비상교육(대표 양태희)은 베트남 영어 교육 기업 'E-English'와 유아영어 프로그램 '윙스(Wings)'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E-English는 내년 3월 호치민, 하노이 등 주요 도시에서 시작해 베트남 전역으로 윙스를 활용한 유아 영어 교육 사업을 벌일 계획이다.

이번 수출 계약은 계약금 30만달러와 학생당 로열티를 별도로 받는 조건으로, 특히 로열티는 최소 판매 목표를 약속하는 미니멈 개런티 방식이어서 상당한 추가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E-English 대표이사 레 아인토(LE ANH THO) 씨는 "비상교육의 선진적 영어 학습 프로그램인 윙스를 통해 베트남 아이들이 즐겁게 영어를 배우길



비상교육 스마트러닝 제품인 윙스(Wings)를 활용해 선생님과 유아들이 영어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비상교육

바라며, 앞으로 비상교육과 더 많은 협력을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비상교육이 3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지난 2016년 한국 시장에서 런칭한 윙스는 교사가 활용하는 터치스크린과 학생이 사용하는 패드가 상호작용해 교육 효과와 몰입도를 높이는 스마트러닝 제품이다. /한용수 기자

상명대 LINC+사업단

**숙박시설 예약정보 활용
운송수단서비스 특허 출원**

상명대학교(총장 백웅기)는 여름방학 중 LINC+사업단의 교육과정에 참여한 학생들이 교육과정을 통해 개발한 '숙박시설 예약정보를 활용한 운송수단의 서비스 제공시스템'을 특허출원했다고 4일 밝혔다.

학생들이 개발한 시스템은 우리나라 지역별 운송관련 서버와 숙박, 지역행사 관련업체의 예약현황, 일정정보 등을 실시간 공유함으로써 여행자와 여행지 상황에 적합한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이용자들의 여행 편의성을 높이고자 했다.

학생들은 이 시스템을 LINC+사업단의 교육프로그램인 4P(Program, Play, Project, Product)를 통해 개발했다.

/한용수 기자